

## 評論의 基本方向 (抄錄) (I)

Bush Brown 著  
宋 旼 求 譯  
(宋旼求建築研究所)

다음은 Architectural Record 1959년 10월호에 실린 M.I.T.  
副教授 Bush Brown의 論文이다.

소위 機能主義라는 機械時代建築에 대한 날카로운 批判이 일고 있었던 때이며, 또 모든 藝術을 言語로서 畏懾하려는 研究가 무르익고 있을 때이다.

1970년이후, 또 한 걸음 앞서 모든 것을 記號로 보려는 思想, 다시 말하여 記号論(Semiotics)에서 藝術을 考察하는 그야말로 世界의 尖端을 겉는 思想이 建築論에서도 支配的인 것이 되었다.

그러한 底流에는 다른아닌 論理的 經驗主義 哲學과 構造主義 言語學, 즉 英, 美, 佛의 思想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특히 無限論爭으로 始終한 哲學을 再建하기 위하여 言語의 暖昧性을 除去하여야 된다는 思考는 建築에도 妥當한 것이다, Brown의 論文 도처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主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된다는 것은 비단 建築에서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初学者를 위하여 本文에서 그러한 것 등을 譯者나름대로 註釈을 달고 이해를 돋우자 한다. / 譯者註 /

現代建築에 관해서 막연히 放談되는 따위의 마치 무너진 Babbel의 탑과 같은 批評의 구설들 때문이 아니었더라면, 聖 Augustine의 라틴旗를 휘날릴 필요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Poisy에서 Ronchamp에 이르기까지, Bauhaus에서 Bagdad까지의 章을 넘겨 본다든가, Mies風의 透明體로부터 Dublin大使館의 施廻하는 모양의 壁面에 이르기까지에서 날개를 편 독수리를 본다음에는, 몇몇 評論가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같이 사람들은 現代는 死滅한 것인가 아닌가를 묻고자 한다. —死滅이라 함은 예를 들어 裝飾의 復古主義의 犠牲, New Brutalism에서 추악한 죽음의 신음소리, 新自由의 嘆願이 機能主義의 死體위에 没落함으

로써 終末을 告하게 된 따위를 말한다.

그러나 死亡記事는 너무 이른 것 같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까닭이기 때문이다.

많은 法人組織이라던가 政府와 같은 依賴人이 한번도 좋은 設計를 찾지를 않았던 것이다. (現在도 그들은 그것을 育成하여야 할 業務이며 团體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른겠다.)

또, 한번도 現代作品과 같은 높은 水準이며 또는 다양한 变화를 우리들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死亡記事가 이르다는 것은, 建築이 지금 Aalto에서 Zimmerman까지를 보면, 充滿한 空間을 지니고 있으며, S.O.M.의 경우는 普遍的이고 밀음직하며 뛰어난 才氣를 다 갖추어 나타내고 있으며, Wurster, Rudolph 또는 Yamasaki는 個性的의면서 때로는 詩的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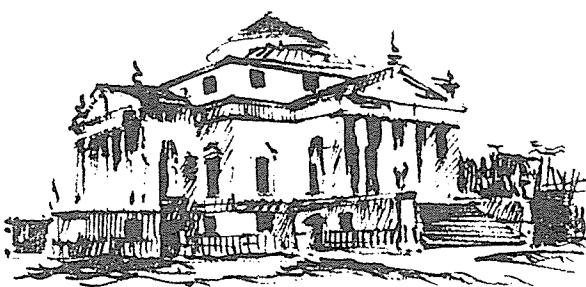
사실 무엇이 일어났었던가 하면, 建築이 오랫동안 理論에 뒤져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 現代建築의 design에 깔려 있었던 偏狹한 理論에 대한挑戰은 통속에 고기를 풀어주는 것과 같이 용이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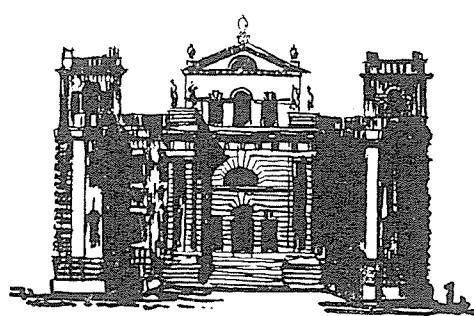
일찌기 1950년에 Nowicki는 “形態는 形態를 따른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機能主義의 slogan의 指導力を 소멸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初期建築의 社会的支柱는 戰後의 繁榮으로써 흐트러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장 잘反映한 것이 Yamasaki의 宣言인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建築의 社会的機能이 藝術作品을 創造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不幸하게도 理論과 評論이 形態에 관해서 거의 아는 바



〈그림 1〉



〈그림 2〉

없었으며, 또 芸術에 관해서는 더욱 더 그러하였던 時期  
에 그들의 試金石이 정확하게 잊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에 그러한 無知가 建築에 대한 오늘날의 막대한 機  
술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建築은 다시 한번 그것이  
지녔던 野心과 積極的 理論的 風土를 틀림없이 발전시켰  
을 것이다.

아무리 그러한 潮流를 높이 評価한다 할지라도, 直觀의  
인 洞察力에 의한 高度로 生産의 時期는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經驗이 축적된 理論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依賴人이건 建築家이건 (兩者가 전부 좋은 建築을 필요  
로 함으로) 그들이 지니는 創造的 精神은 곧 批判的 精神  
이 아니면 안된다.

吟味되고, 研究되어, 축적되어야 하며, 또 檢討되어,  
評価되고 또 버릴 것은 버려야 하며, 그리하여 必然의 으  
로 이끌어지는 完全性으로 觀念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되  
는 것이다.

아직도 達成하지 못한 드높은 理想을 지니지 않은 建築  
가 있겠는가?

만일 그러한 理想을 지니지 않은 建築가가 있다고 하면,  
그로 하여금 라틴어를 더 공부하게 하고 Augustine을 다  
시 한번 읽게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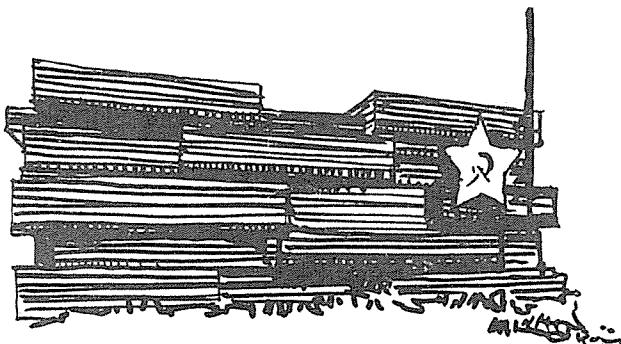
#### /譯者註 /

聖 Augustine이 引用된 것은 Aurelius Augustinus (354 –  
430)는 初期그리스도교의 教義를 神學의 統一을 하여 中世思想  
體系 形成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偉大한 独創의 思想家이  
다. 특히 그는 美의 本質論을 中心課題로 한 많은 글을 남겨  
中世의 美學思想을 짜트게 하였던 것이다.

Poisy에서 Ronchamp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물론 Le  
Corbusier에 관한 말이며, Poisy에 유명한 Le Corbusier의  
Savoie邸가 있다.

Bauhaus에서 Bagdad까지라는 것도 Walter Gropius에 관  
한 것이며, Bagdad에 관한 것은, Gropius가 'The Archi  
tects Collaborative International Ltd'를 設立하고 1950년 후반  
에 Bagdad大學 総合計画案을 作成 發表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Mies風의 透明體로부터 云云의 句節은, 사실 Saarinen의  
作品에는 Mies風의 것도 많다. 獨수리모양을 한 T. W. A. air  
terminal은 Sydney Opera House를 審查하고 와서 만든 作品  
이라고 한다.



〈그림 3〉

## I. 建築의 評価基準

위대한 建築은 여러가지 段階의 기쁨을 준다. 우리들의  
知性에 영향을 미치며, 雰囲氣를 造成하고, 우리들의  
記憶을 뒤흔들곤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것은 材質, 音響,  
향기로움 특히 視覺을 통하여 우리들의 感覺에 호소하며  
우리들의 環境에 대한 認識을 刺激하는 것이다.

A. 建物이라는 것은 다음 세가지 경우에서는 建築일  
수가 없다.

1. 완전히 失敗하였을 경우.

a) 失敗가 뚜렷한 경우.

b) 論할 여지가 없는 경우.

2. 目的에適合하지 않을 경우.

a) 이것은 機能上의 失敗를 말한다.

사람들은 住宅이 非能率의인데도 그들의 適応性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며 심지어 資本化까지 하는데, 그러한 人間에  
대한 居住性을 判断하는 것보다 住居를 機械로서  
이끄는 것을 評論으로서는 더욱 중대시한다.

b) 걸출한 作品은 모든 目的에 대하여 반듯이 이  
로운 것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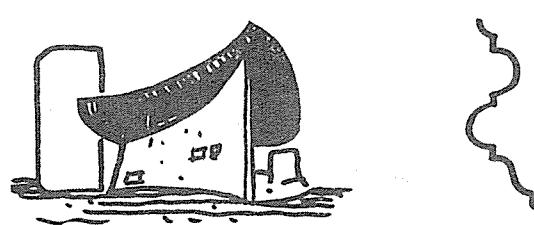
음향학으로 명확한 聽取를 위하는 것임을 뜻한다. 그  
러나 예를 들면 教會에서는 그러한 것이 최상의 方法이  
라고는 할 수 없다. 극단한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하나님  
의 목소리가 教會 둥근天井 구석 구석을 울려 퍼지는  
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을 聖職者가 真理探求를 함으로써  
찾을 수 있도록 聖父와 聖子와 聖神에게 비는 것이다.

c) 말할 나위없이 완전한 作品이라는 것은 美와  
는 분리되어서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여 美의  
結果이지 美의 生成은 아닌 것이다.

#### /譯者註 /

機械時代의 作家들은 航空機ら든가 船舶의 경우와 같이 必  
要한 것 以外의 것은 除去하고 오직 機能을 완전히 發揮시켰을  
때 美가 生成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때 生成된 새로운 機  
械美를 人間은 創造하였으며 '形態는 機能을 따른다.'라는 유  
명한 말도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을 批判한 것으로서, 사실 表現과 内容은 表裏와 같은



〈그림 4〉

것으로서 어떤 한편을 斷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機能이라는 것은 形態에 잘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된다.

Cram의 Gothic Marquand教会가 長老教派사람들이 大多数인 Princeton에서 宗教的儀式을 접차로 英国国教化로 促進시킬 때,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났던 것이다.

### 3. 芸術作品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

a) “무엇이 芸術作品인가?”라는 反問에 대답할 때 타당한 批判基準이 있어 그것을 強調하는 것인데, 그 批判의 基準이 論難의 余地가 많은 것이다.

b) 우선 伝記的 名言을 判断할 때 혼돈 하여서는 안된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句節도 흥미 있는 伝記的 名言의 한토막이다. 그러나, 과연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채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한 정도에서 모든것이 處理된다는 것은 좋던 나쁘던 自身의 趣向의 水準을 피력할 때이다.

c) 둘째는 “아름다운고로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句節을 생각하여 보자.

이것은 質에 관한 判断인 것이다.

그러한 伝記的 情報는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句節과 같이 適切치 않다든가 근거없는 것일 수 있다.

## B. 芸術의 基本으로서의 統一性

1. 趣向이라는 것은 분명히 主觀的인 것이다. 歷史라는 것은 좋고 나쁜 趣向의 屍体室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쉽게 혼들리며, 마치 流行이 变하는 것과 같고, 때로는 Clark Gable이 主演한 “It Happened One Night”라는 映画에서 그가 가슴을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다.

가슴을 들어낸 까닭으로 縫製内衣産業은 거이 破産하였다.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無知한 者의 判断이라는 것은, 公正한 法廷은 아닌 것이다.

Hagia Sophia, Taj Mahal 또는 Amines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 없는 사람이 Milwaukee州 戰爭記念館을 判定하기 위하여 현명한 譯護人일 수는 없는 것이다.

2. 知識人, 芸術學徒속에서 일고 있었던 批判의 判断은 두드러지게 일정한 것이었다.

世界各地에 있는 큰 建物 100個에 대해 表를 만들어 보라.

評論家가 除外하였던 10個를 당신은 포함시킬 것이다, Paul Revere House, Mother Lode에 있는 통나무造飲食店, 美軍團의 野戰郵遞局같은 것은 表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Howard Johnson이 아니고 Philip Johnson의 建築에 注目할 것이다.

그것들이 社會의 한 記錄으로서 얼마나 讚美에 차고 興味에 찬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써는 위대한 建築에서 期待되는 卓越함의 基準이 될 수 없다.

그러면 建築이 지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무엇이 啓示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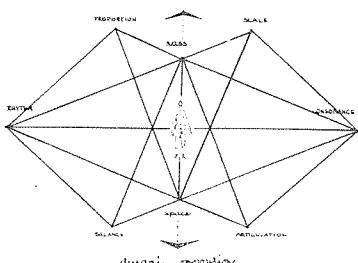
3. 光線과 陰影속의 mass를 본다면가, 앞으로 나온다든가 뒤로 물려선 平面, 突出한 部分과 움푹 들어간 部分을 보게 된다고하여, 또 目的이 명확하게 表現이 되어 은신처에 대하여 확실하게 作用하고 있는 것을 다 보게 된다고 하여, 그것이 강하고 統一된 言語가 되며, 그 自體가 완전히 一貫性을 지닌 建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a) 統一性이라는 것은, 一貫性 있는 要素의 組織이 이루어진 결과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위대한 建築이라는 것은, 支配의인 主題를 세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 主題는 Villa Capra의 경우와 같이 한없이 맑은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림 1)

또는 Seaton Delaval (그림 2)와 같이 主題가 不安과 刺激으로 両立된다면, 対立에 부닥치게 되고 違背됨에 놀라는 感情으로 充滿될 것이다.

b) 芸術作品이라는 것은 반듯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Picasso의 Guernica 못지않게 Berlin에 있는 Mies Van



〈그림 5〉



〈그림 6〉



〈그림 7〉

der Rohe의 Liebknecht 記念碑는 (그림 3) 어떠한 달콤한 感覺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두가지가 다 人間行動을 告発하는 것이며, 그들이 非難하는 그 醜惡한 面에서 人間을 压倒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c) 그러므로 藝術作品의 構成은 目的에 依存하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美라는 것은 相對的인 것이다. — 相對의이라는 것은 觀照者에 대한 것이 아니고 自体가자닌 全體的인 意味에 대한 것이다.

이 構成의 原則은 主觀的인 것이 아니며, 특정한 効果를 이루하기 위한 道具인 것이다.

하찮은 예이나, 빨간 壁은 空間을 縮少시키는 느낌을 준다든가, 軸이 形成된다든가, 外觀上 무게가 感少된 것으로 느끼게 한다든가, 壁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든가, 크기를 확실하게 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空閒에 視覺的 効果를 내기위하여 色彩를 利用하는 原則도 普遍的으로 作用하는 것이고 客觀的 事實인 것이다.

d) 다만 어떤 특정한 점에 原則을 採擇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이루어야 할 目的에 左右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垂直壁에 대한 曲線과의 関係는, 만일에 曲線이 垂直壁에 대하여 切線이 平行하지 않을 때는, 또 直交面을 지나 交叉할 때는, 대개의 경우 가장 정밀하고 뚜렷하게 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原則이 많은 建物의 構成을 올바르고 뚜렷이 하는데 反하여, Ronchamp 寺院은 그렇치가 않아 그 價值를 심히 感少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깊은, 굽은 지붕과 base가 없는 壁으로 神祕를 나타낼 작정이었으나, 垂直面, 완만한 傾斜面과 曲面사이의 명확하지 못한 관계가 意図的인 神祕性을 誇張한 것이 되었다. (그림 4)

e) 反復하여 보자. 모든 原則은 확실한 反對命題를 지니는 것이다.

原inciple의 利用은 成遂하여야 할 目的에 依存하는 것이다. 不協和와 協和사이에도 그나름의 固有의 法則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原則이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대단히 差異가 있는 것이다.

### C. 空間의 統一性과 包括性

1. 대부분의 公共環境이 오늘날 4 가지 原則의in 誤謬로 美學的인 見地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

a) 즐겁고 쓸모 있는 環境을 空間의 秩序, 連續 및 律動的인 繼起에서 이끌어야 하는 것이라고 認識되어야 할 것이 利用面에서 構成하고 陽地와 陰地를 들추는 것으로 잘못 認識한 것이다.

b) 建物이 지닌 一貫性이라는 것은 構成(空間과 mass의 調整—均衡, 律動, scale 및 抑揚)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것이며, 어떤 樣式(Gothic, Georgian 또는 現代)에 부합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데에서 일어난 失敗가 그것이다.

c) 主道路, 크라이막스, 終結 이러한 식이라든가 構內 또는 公共空間이 지니는 内的 리듬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데에서 일어난 失敗도 그 하나다.

d) 構成에는 두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 하나는 靜的인 것이며 Parthenon과 같은 單純性, 統一된 形態를 말함이고, 다른 하나는 動的인 것으로서 多面의이며 標題芸術과 같은 것이다.

動的인 것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標題芸術의인 것으로서 進行順序의 여러 부분이 非對稱의으로 調整되고 또 여러 平行한 軸 또는 群集하는 軸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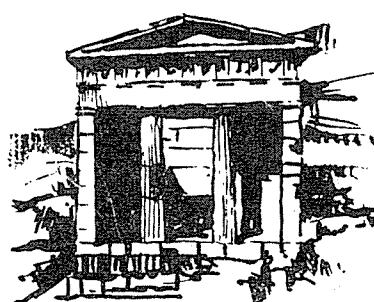
다른 하나는 方向性 또는 律動性이며, 術間인 個韻律이 mass 또는 空間의 個 方向으로 움직임을 知覺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5)

i) 靜的인 것의 한 예는 Pyramid이다. (그림 6) 하나의 空間속에서 있으며, 孤立되어 있고, 自足的이며, 周囲 어디서나 보이고, 軸이 限定되어, 크라이막스를 나타내고, 構成이 象徵의役割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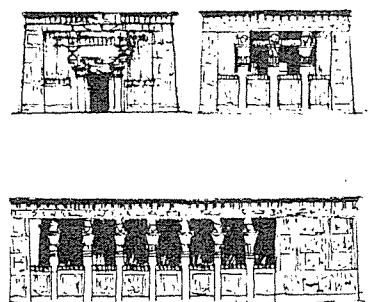
動的인 것에서는, 空間의 mass를 支配하여 外形을 이루게 한다.

軸은 独立되지 않으며, 다른 建物 또는 떨어져 있는 空間과 均衡을 이루어야 完結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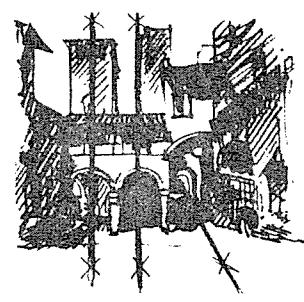
ii) 이 두가지 종류의 構成은 두가지 理由때문에 그려 한 것이다.



〈그림 8〉



〈그림 9〉



〈그림 10〉

첫째, 靜的이라는 것은 結節点이며, 그것으로써 크라이막스를 支配하는 것인데 反하여 動的인 것은 連續의外部空間의 윤곽을 드러낸다.

둘째, 이 두가지 建物에서 靜의 建物 내부에서는 올바르고, 영원하며, 相對의로 安定된 속에서 公共의 機能이 깃들어 機能할 수 있게 되는데, 動의인 것에서는 一時의인 것, 過汲의인 것, 私의인 利用으로 말미암아 可變性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iii) 그러한 分類의 法則이 주어짐으로써 두가지 型의 建物이 서로相反되는 design의 原則에 흔히 따르게 되는 것이다.

靜의인 것은 하나의 總體로서 또 統一된 構成으로써 그 것을 孤立되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의하여 助成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Volume, 水平性, 垂直性 등으로 3部로 나뉘는 区分이 靜의인 建物을 強調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8)

動의인 것은 重複性, 長大한 것, 해아릴 수 없는 韻律에서 더욱 풍요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까닭에 建物이라는 mass에 들어가는 出入口는 空間의 視覺的應答에 스며들어 反応하는 것이다. (그림 9)

重複性과 rhythm은 觀照者로 하여금 应答하는 것을 뒤로 미루어 강요하며, Viterbo에 서와 같이 重複性을 外部의 均衡되는 점으로 転換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림 10)

## 2. 例: 베니스의 Piazza di San Marco (그림 11)

a) 이 현명하고 予期치 못하였던 垦地利用에서 隣接한 것, 連續性을 지닌 것에서 먼 거리에 있는 要素들까지 空間의 律動의인 繼起를 受容하도록 構成이 自体의 限界밖까지 뻗쳐있다.

b) 一貫性은 rhythm, scale 및 均衡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특정한 様式에 符合함으로써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c) 建物形態가 지닌 階層(hierarchy)이라는 것은 뜻깊은 公共의 建物에서는 강한 建築言語를 留保하는 것이다.

記念性을 띤 建物이 그러한 것인데, 主出入通路로써 그

것이 나타나고 또 限定되는 것이며, 또 좁고 긴 조망(vista)이 긴 内部의 rhythem으로써 形態를 이루게 한다.

d) 空間은 漸進의로 커지며 記念의인 Basilica에서 끝맺어진다.

空閒은 標題藝術의 建物로써 規定지워지는데 — 列拱으로 된 壁이 긴 衍間의 繼起를 構成하고 있다. 또 그 結果에서 이루어진 空間은 塔과 같은 記念의인 要素로써 強調되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이의 空間에는 注意를 이끌어 焦點이 되게 하는 軸이 여러갈래 있다.

平面에서는 形態의 變形이 자연히 일어나게 되며, 錯覺과 立体感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이 mass 및 空間, 빛과 그림자의 対比로써 強調되고 그와 함께 色彩, 材料, 質感 및 scale의 差異에서 강조된 것이다.

## D. 基本의인 分類: 様式 대 構成 (그림 12)

統一性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空間과 mass를 組織하는 機能이며, 様式은 아닌 것이다.

1. 建築에서의 '樣式'이라는 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수의 建物이 空間, mass 및 平面에서 어떤 要素가 共通점을 지녔을 때 그 結果로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기, 모양과 機能에 差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類似性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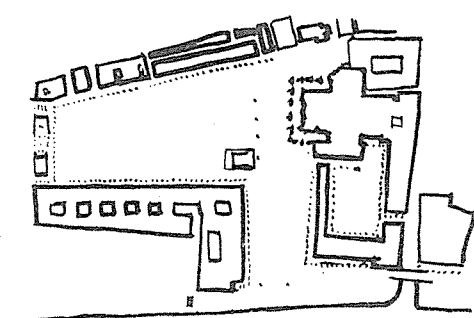
2. 構成이라는 것은 様式的인 要素의 組織이라는 뜻으로 귀착된다.

3. 그에 대한 法則에 관해서 몇가지 基礎의인 說明을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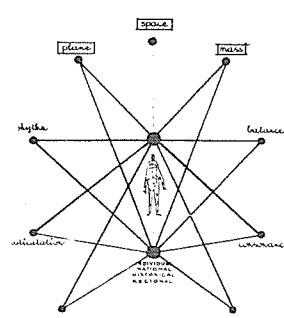
a) 같은 様式의 두 建物을 예를 들어 Amiens과 Chartres를 선택하여 보면, 한편이 構成에서 뛰어난다고 할 수 있다.

b) 서로 다른 様式의 두 建物, 말하자면 Parthenon과 Vierzehnheiligen은 構成에 있어서 서로 같이 감탄할 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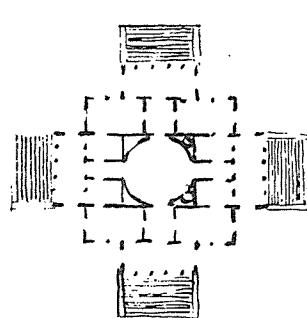
c)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기를 賛成하지 않는 様式의 建築으로서 예를 들면 Harvard에 있는 Richardson의 Sever Hall 또는 Washington에 있는 Bacon의 Lincoln 記念館과 같은 것은 탁월한 構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이와는 달리 Frank Lloyd Wright의 Kansas City에 있는 Community Church는, 樣式에 있어서는 마땅히 是認め되어야 하나, 한탄스럽게도 design으로서는 失敗한 것이다.

4. 그려므로 樣式이 라는 것은 一構成과는同一한 것이 아니며 一形式面에 있어서 卓越하다는 것의 基準은 아닌 것이다.

다음에 樣式에 대해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 II. 樣式의 理解에 대하여

“樣式”이라는 어휘와 같이 現代建築家에 의해서 拒否된 말은 거의 없다.

그 말은 古典的 秩序에 관해서 教科書의 發想으로 잘못 이끌어진 것이며 構造를 덮어 씨우는 化粧性的 뜻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現代理論은 대개 樣式에 관한 것 이외는 다루지를 않았으며, 새로운 樣式을 主張하였고 또 理論全体를 樣式을 造作하는 것에 돌리는 잘못을 犯함으로써 오늘날 批評의 基準을 혼미로 빠트려 헛되게 한 原因의 하나가 된 것이다.

### A. 樣式의 範囲와 意味

#### 1. 樣式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東洋과 原始建築과 구별되는 西洋建築에는 連續性이 있다.

東洋과 原始建築은, 平行 4邊形과 專制君主의 상자와 같은 人間의 은신처에 대하여 偏愛하는 식을 西洋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樣式이 라는 것은, Gothic이 2내지 3백년을 지속한 것과 같이 歷史의 한 時期를 証明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Spain과 그의 殖民地에서의 Plateresque와 같이 排他的이며 国家的인 것이며, 또는 이탈리아식 Gothic과 같이 한 時代의 樣式을 国家的으로 變革한 것도 있다.

Provencal Romanesque와 같이 단지 地域의 일 수도 있으며, Venice주위에 있는 Palladio의 꽃과 같은 作品같이 단 하나의 派의 作品조차도 포함되어 地方의 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個人的인 基準에서 Gaudi의 作品이 그려하였듯이 樣式은 完全히 個性的일 수도 있다. 또 個性的인 樣式이라는 것은 承認할 수 있는 斷切을 지니게 된다. 그러한 깊이 Frank Lloyd Wright가 걸어온 길은 여러 段階로 細分할 수 있는 것이다.

2. 樣式이 라는 것은 特色을 지닌 空間, 그림자, 構造體系, 裝飾에 관한 暗喻인 것이다.

a) 建築에 관한 想像力은 幾何學的 形態와 數學的 기와 함께 作用하는 것이다.

단순하고 原初의 形態로서, Giza의 Pyramid; Pisa의 円筒形; Palazzo Strozzi의 平行 6面体; 円筒形 절반이 水平으로 깔린 것; 球의 절반 또는 dome; 双曲面 vault; 인도의 토막집과 같은 여려종류의 円錐形, Alberobello에 있는 흙손질 한 집과 같은 끝벌통 모양의 dome; Padua에 있는 San Antonio의 지붕과 같은 3角 프리즘形; 또 Ravenna에 있는 San Vitale와 8角프리즘形 등이 있다.

b) 그러한 基本的인 모양은 建物全体를 限定하게 될 것이며; 格을 낮추면 構成要素가 된다든가 또는 단순히 다른 形態의 補助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걸음 더 格을 낮추게 되면, 기둥위 라든가 裝飾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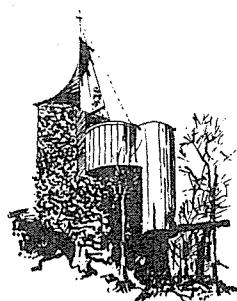
3. 모든 樣式上의 暗喻는 由來를 保証하는 것이다. 特定한 場所와 時間에 있어서 特定한 사립중에서 그 起源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다.

a) 이 집트人은 軸에 대하여 直角인 幅에서 平面을 連續시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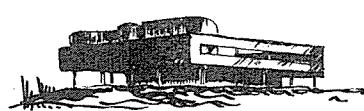
平行한 映像의 연속됨으로써 생기는 律動感은 不規則하며, 同一하지 않고 空間이 細分된 것을 단순하고 긴 軸으로써 連續되고 연관된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b) Gothic建築은 알아볼 수 있는 空洞으로써 主軸을 이루게 하고, 空洞을 細分함으로써 桁間의 規則的인 韻律이 일어나게 하여 그것을 강한 律動的인 裝飾으로써 묶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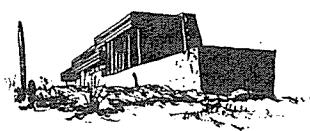
명확한 分離는 많은 細胞와 같은 空間으로 区分하게 되며, 강한 軸은 全體 幾何學的인 것과 더불어 焦點을 聚集해서 一貫性있게 立体感을 強調하게 된다.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